

읽기 쉬운 신약성경

Language: 한국어 (Korean)

Provided by: Bible League International.

Copyright and Permission to Copy

Taken from the Korean: Easy-to-Read Version © 2003 by Bible League International.

PDF generated on 2017-08-25 from source files dated 2017-08-25.

9bac292a-0755-530b-b49d-81aef79b3112

ISBN: 978-1-5313-1313-5

사도행전

누가 또 다른 책을 쓰다

1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나는 첫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다 썼습니다. ² 곧 예수께서 처음부터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 행하고 가르치신 것을 모두 적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여러 가지 할 일을 일러 주셨습니다. ³ 예수께서는 돌아가신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십 일 동안 사도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자신이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해 보이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⁴ 어느 날 예수께서 사도들과 음식을 드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나는 그 약속에 관해 전에 너희에게 말해 준 적이 있다. ⁵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머지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다

⁶ 사도들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예수께 여쭙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돌려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⁷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날과 시간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실 일이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⁸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 것이다.”

⁹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예수께서는 구름에 싸여 보이지 않게 되었다. ¹⁰ 사도들이 예수께서 가시는 하늘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사도들 곁에 서 있었다. ¹¹ 그들이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여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새 사도를 뽑다

¹² 사도들은 올리브 산이라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올리브 산은 예루살렘에서 1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있다.) ¹³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머물고 있던 이층 방으로 갔다. 거기 모인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매와 마태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쟁이[‡]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¹⁴ 사도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몇몇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이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

* **1:5 세례자 요한** 그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선포하였다(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 **1:12 1킬로미터** 글자 그대로는 ‘안식일 거리’. 곧 안식일에 가도 좋다고 유대 사람들에게 허용된 거리.

[‡] **1:13 열심쟁이** 그리스어 사본에는 ‘가나니안’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아마도 ‘질투심이 많은’ 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온 것 같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특별히 열심이었던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기원후 67-68년 겨울까지는 ‘열심당’ 이라고 알려진 단체가 조직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열심당원’ 이란 이름은 로마의 통치에 반항하여 싸운 유대 사람의 단체에 속했던 사람들에게 훨씬 뒤에 주어진 이름이다.

15 며칠 뒤에 믿는 이들의 모임이 있어서 일백이십 명쯤이 모였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였다. 16-17 “형제자매 여러분, 유다는 본래 우리 열두 사람 가운데 하나로,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유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18 (유다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받은 돈으로 밭을 샀다. 그러나 유다는 거꾸러져 배가 터지면서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다. 19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 일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불렀다. 아겔다마는 그 사람들의 말로 ‘피의 밭’이라는 뜻이다. §)

20 베드로가 계속 말하였다. “시편에 보면 유다에 관하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땅에
가까이 가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

21-22 그러니 이제 새로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23 그들은 두 사람을 후보로 내세웠다. 한 사람은 유스도라고 하는 바사바였고, 또 한 사람은 맛디아였다. 24-25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이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지 저희에게 보여 주십시오. 유다는 이 일을 버리고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주님, 어느 사람을 사도로 뽑아 유다의 자리를 맡기려고 하시는지 저희에게 보여 주십시오!” 26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아 보니 맛디아가 뽑혀서 다른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성령이 오시다

2 오순절이 되어 믿는 이들이 한 곳에 모두 모여 있었다. 2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앉아 있는 집이 온통 그 소리로 가득 찼다. 3 그들은 허같이 생긴 불길을 보았다. 그 불길은 사방으로 퍼져 나가서, 그곳에 있는 각 사람 위에 내렸다. 4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께서 주신 능력에 따라서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5 그 무렵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모여든 신앙 깊은 유대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다. 6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다. 그들은 매우 놀랐다. 믿는 이들이 하는 말을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7 그들은 이 일을 보고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8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각기 우리가 태어난 나라 말로 듣고 있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소? 9 우리는 바대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와, 10 브루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와

¶ 1:16-17 성경 구약 성경.

§ 1:19 마태복음 27장 3-10절을 볼 것.

** 1:20 시 69:25.

† † 1:20 시 109:8.

‡ ‡ 1:21-22 요한 세례자 요한.

¶ ¶ 2:9 아시아 소아시아의 서쪽 지방.

가까운 리비아에 사는 사람들이고,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¹¹ 유대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 [§]한 사람과,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큰일들을 전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저마다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있소.” ¹²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리둥절해서 서로에게 물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¹³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술을 너무 마셔서 취한 것이오.”

베드로, 오순절에 설교하다

¹⁴ 그러자 베드로가 다른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크고 똑똑한 목소리로 무리에게 말하였다. “유대 형제 여러분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¹⁵ 지금은 겨우 아침 아홉 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¹⁶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예언자 요엘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¹⁷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¹⁸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쏟아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딸들이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나는 내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쏟아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하리라.

¹⁹ 나는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이고

땅 위에서 기적을 일으키리니,

그것은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²⁰ 영광스러운 주의 날이 오기에 앞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처럼 붉어지리라.

²¹ 그때에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²² 이스라엘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사렛 사람 예수는 매우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시려고, 여러분 가운데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들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²³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세의 법을 모르는 이방 사람 [§]들의

§ **2:11 개종** 자기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것.

* **2:18 내 영** 또는 ‘성령’.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이며,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시다.

† **2:18 환상**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용하시는 꿈과 같은 것.

‡ **2:21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글자 그대로의 뜻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 **2:21** 율 2:28-32.

§ **2:23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손을 빌려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²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은 예수를 붙들어 둘 수 없었습니다. ²⁵ 다윗은 예수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앞에 계시는 주를 뵈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²⁶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 노래한다.

이 몸 또한 희망 속에 살리니,

²⁷ 주께서 내 영혼을 저승**에 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의 몸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²⁸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 주셨으며,

주 앞에서

나를 기쁨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

²⁹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조상 다윗 † †이 죽어서 땅에 묻혔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무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³⁰ 다윗은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 주겠다고 하신 맹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³¹ 그래서 다윗은 앞을 내다보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저승 † †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몸이 썩지 않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³²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³³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려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이 바로 그 성령 때문입니다. ³⁴⁻³⁵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분은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게 무릎 꿇게 할 때까지 § §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이라.’*

³⁶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³⁷ 사람들은 그 말에 마음이 찢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³⁸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³⁹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먼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신 약속입니다.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2:27 저승 그리스어로는 ‘하데스’.

† † 2:28 시 16:8-11.

† † 2:29 다윗 기원전 1000년 즈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

† † 2:31 저승 그리스어로는 ‘하데스’.

§ § 2:34-35 네 원수들을…때까지 글자 그대로의 뜻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만들 때까지’.

*2:34-35 시 110:1.

40 베드로는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이 시대의 악한 사람들에게 내려질 벌에서 여러분 자신을 구하십시오!” 하고 간곡히 권하였다. 41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수가 삼천 명이나 늘어났다. 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서로 사귀고, 함께 빵을 떼고, †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믿는 이들이 가진 것을 나누며 살다

43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과 기적이 나타나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44 믿는 이들은 끊임없이 함께 모이고 가진 것을 모두 나누었다. 45 그들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땅과 가진 것을 팔아서 모두에게 나누어 주곤 하였다. 46 믿는 이들은 날마다 성전 뜰에서 함께 모였다.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면서, 기쁘고 신실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좋아하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베드로, 다리 못 쓰는 사람을 고치다

3 어느 날 오후 세 시쯤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고 있었다. 그 시간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2 ‘아름다운 문’ 이라고 부르는 성전 문 옆에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 날마다 사람들이 그를 이 문 옆에 데려다 놓았다. 그는 거기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였다. 3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돈을 달라고 하였다. 4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였다. “우리를 보십시오!” 5 그 사람은 돈을 주려는 줄 알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6 베드로가 말하였다. “내게 은이나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7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자, 곧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8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자기 발로 서서 걷기 시작하였다. 그 사람은 두 사도와 함께 성전 뜰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9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10 사람들은 그가 늘 ‘아름다운 문’ 옆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았다. 사람들은 그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몹시 놀라서 어리둥절해졌다.

베드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다

11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의 걸을 떠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나온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놀라서, 솔로몬 행각 † 이라는 곳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려왔다. 12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형제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십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잘 섬겨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13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 주기로 결정하였으나,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14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그분 대신 살인자 ¶ 를 풀어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습니다. 15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16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 2:42 함께 빵을 떼고 이 말은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기념하여 먹으라고 지시하신 특별한 식사인 ‘주의 만찬’ 을 함께 먹었다는 뜻일 수도 있다. 누가복음 22장 14-20절을 볼 것.

‡ 3:11 솔로몬 행각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있는, 지붕을 덮은 회랑.

¶ 3:14 살인자 바라바를 가리킨다(눅 23:18).

그분을 통해 오는 우리의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 보셨습니다.

¹⁷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모르고 예수께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도 잘 몰라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¹⁸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당신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를 통하여, 당신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¹⁹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²⁰ 그리고 나면 여러분은 주께서 새로운 힘을 주실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 주실 것입니다. ²¹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옛날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²²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주 하나님께서 나를 예언자로 뽑아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들 가운데서 또 한 예언자를 뽑아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분이 하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따라야 한다. ²³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쫓겨나 멸망을 당할 것이다.’⁵ ²⁴ 사무엘과 사무엘의 뒤를 이어 예언한 다른 모든 예언자들도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²⁵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상속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맺으신 계약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세상 모든 민족이 너희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²⁶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일으켜 세우셨을 때에, 그분을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일에서 돌아서게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의회 앞에 서다

4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장과 사두개파사람들이 몰려왔다. ² 그들은 화가 나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³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이틀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이미 저녁때가 다 되었기 때문이다. ⁴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믿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오천 명으로 늘어났다.

⁵ 다음 날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선생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⁶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⁷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우고 물었다. “당신들은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소?”

⁸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와 장로이신 여러분! ⁹ 여러분이 오늘 우리를 불러 따져 묻는 것이, 다리를 못 쓰던 이 사람에게 베푼 선한 일과, 또 그가 어떻게 하여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입니까? ¹⁰ 그렇다면 여러분과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¹¹ 이 예수는

‘너희,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⁵ 3:23 너희 주 하나님…당할 것이다 신 18:15, 19.

**3:25 세상…받을 것이다 창 22:18; 26:24.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¹²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밖에는 하늘 아래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¹³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배운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¹⁴ 그들은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다 나아서 두 사도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¹⁵ 그들은 사도들을 잠시 의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한 뒤에 서로 의논하였다. ¹⁶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들이 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¹⁷ 그러나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 더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들에게 단단히 경고해야 합니다.”

¹⁸ 그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¹⁹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²⁰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²¹ 그들은 사람들 때문에 두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이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위협만 하고서 사도들을 풀어주었다. ²² 이 기적으로 성한 몸이 된 사람은 마흔 살이 넘었다.

베드로와 요한, 믿는 형제들에게 돌아오다

²³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서 풀려 나오는 길로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높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보고하였다. ²⁴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²⁵ 주께서는 당신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거만스럽게 구는가?

어찌하여 이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헛되이 계획을 꾸미는가?

²⁶ 주와

주께서 기름 부으신 이*에게 맞서려고

세상의 왕들이 들고일어나며

통치자들이 모두 모였구나.’[†]

²⁷ 바로 이런 일이 이곳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주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삼으신 주의 거룩한 종 예수와 맞서려고 함께 들고일어났습니다. ²⁸ 그러나 그들이 한 짓은, 주께서 권능과 뜻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미리 정하셨던 일일 뿐입니다. ²⁹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여 하는

^{††} 4:11 머릿돌 한 건물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첫번째 돌.

^{‡‡} 4:11 시 118:22.

¶¶ 4:15 의회 그리스어로는 ‘산헤드린’.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 71명으로 이루어진 국가 최고의 입법과 사법 기구.

§§ 4:23 장로 나이가 지긋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

* 4:26 기름 부으신 이 곧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 4:26 시 2:1-2.

‡ 4:27 헤롯 헤롯 안티파스. 헤롯대왕의 아들로서, 갈릴리와 베레아의 영주였다.

말을 들으시고, 당신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³⁰ 당신의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종 예수의 능력과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³¹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던 곳이 흔들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였다.

믿는 이들이 가진 것을 나누며 살다

³² 모든 믿는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었다. 그들은 누구도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다. ³³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믿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 ³⁴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쪼들리는 사람이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모두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³⁵ 사도들 앞에 내어 놓고, 저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받았다.

³⁶ 믿는 이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도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다. (이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요셉은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 [¶]이었다.

³⁷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 앞에 내놓았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5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삽비라였다. 아나니아는 자기가 가진 땅의 얼마를 팔았다. ² 그는 그 돈에서 얼마를 따로 떼어 놓고, 나머지만 가져와 사도들에게 내놓았다. 그의 아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³ 베드로가 말하였다. “아나니아, 어찌하여 당신은 사탄에게 흘려서, 성령께 거짓말을 하고, 땅을 팔아 생긴 돈을 떼어서 몰래 숨겼습니까? ⁴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당신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당신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나쁜 짓을 할 마음을 먹었습니까?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⁵ 아나니아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⁶ 젊은 사람 몇이 들어와 아나니아의 주검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⁷ 세 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들어왔다.

⁸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말하였다. “이 돈이 당신네 땅을 판 돈의 모두입니까?”

삽비라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이 모두입니다.”

⁹ 베드로가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서로 짜고 주의 영을 떠보려 하였습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남편을 장사지낸 사람들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을 메고 나갈 차례입니다.” ¹⁰ 그 순간 삽비라는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삽비라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는 들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¹¹ 온 교회와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

¹²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 주었다. 사도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 행각 [§]에 모이곤 하였다. ¹³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여들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백성에게서 많은 칭찬을 받았다. ¹⁴ 많은 남자와 여자가 믿게 되어, 주를 믿는 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¹⁵ 그리하여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와서, 침상이나 자리에 누워 놓았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몇 사람에게 닿게 하려는 것이었다. ¹⁶ 또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여러 마을에서

[¶] 4:36 레위 사람 이스라엘의 열두 가문 가운데 하나인 레위 가문에 속한 사람.

[§] 5:12 솔로몬 행각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있는, 지붕을 덮은 회랑.

많은 사람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다. 그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

유대 사람들이 사도들을 방해하려 하다

17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인 사두개파사람들이 시새움을 냈다. 18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다. 19 그러나 밤중에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였다. 20 “가서, 성전 뜰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삶에 대한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여라.” 21 사도들은 천사가 일러 준 대로 새벽에 성전 뜰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함께 모여서, 의회**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모으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22 경비원들이 감옥으로 가 보니 사도들이 없었다. 그들은 돌아와 이렇게 보고하였다. 23 “감옥 문은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 보니 감옥은 비어 있었습니다.” 24 성전 경비대장과 높은 제사장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일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며 어쩔 줄 몰라 하였다. 25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여러분이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성전 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6 그 말을 듣고 성전 경비대장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려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화가 나 돌로 칠까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27 그들이 사도들을 데리고 가서 의회 앞에 세웠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물었다. 28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 † †으로는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을 내렸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고,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죄 값을 우리에게 묻기로 작정을 하였소.”

29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30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31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들어 올리시어 자신의 오른쪽에 앉게 하시고, 우리의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32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증인이십니다.”

33 유대 지도자들은 이 말을 듣고 무척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고 싶어하였다. 34 의회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인 한 바리새파 사람이 일어섰다. 그의 이름은 가말리엘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율법 선생이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나가 있게 한 다음 35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6 얼마 전에 드다가 나타나서 자기를 위대한 사람으로 내세우자, 사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흩어지고 그 일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37 그 뒤에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자 몇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38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둡시다. 이 사람들의 계획과 행동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39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 되거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가말리엘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40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여 매질하고, 다시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다음, 그들을 풀어주었다.

**5:21 의회 그리스어로는 ‘산헤드린’.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 71명으로 이루어진 국가 최고의 입법과 사법 기구.

† † 5:28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조차 싫어했다. 4:17, 18을 보라.

41 사도들은 의회를 떠나며, 자기들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사람들로 여겨 주신 것을 기뻐하였다. 42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 뜰과 사람들의 집에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는 기쁜 소식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사도들을 돕기 위해 일곱 사람을 뽑다

6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쓰는 믿는 이들이 아람 말을 쓰는 다른 믿는 이들을 두고 불평하는 일이 있었다. 날마다 믿는 이들이 식량을 나누어 받을 때, 자기네 흠어미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2 열두 사도는 믿는 이들을 모두 한 자리에 불러 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3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일곱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들은 못사람에게서 우리들을 받고, 지혜와 성령이 가득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섬기는 일을 맡기겠습니다. 4 그런 다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5 모든 사람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믿음이 깊고 성령이 충만한 스테반과 더불어,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를 뽑았다. 니골라는 안디옥 출신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다. 6 그들은 그 일곱 사람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얹었다. 7

7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갔다.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빠르게 늘어났다. 유대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음에 순종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스테반과 맞서다

8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은 백성들 가운데서 크고 놀라운 일들과 표적을 행하였다. 9 그러나 어떤 유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스테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 유대 사람들은 이른바 ‘해방 노예의 회당’[§] 사람들로서,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10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스테반이 지혜롭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스테반을 당해 낼 수 없었다.

11 그러자 그들은 은밀하게 몇 사람을 꼬드겨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우리는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

12 그들은 이렇게 하여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 선생들을 부추겼다. 그들은 스테반을 붙잡아 의회로 끌고 갔다. 13 그들은 거짓 증인 몇 사람을 만들어 냈다. 그 거짓 증인들은 스테반을 두고 이렇게 증언하였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모세의 율법을 계속하여 나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14 우리는 그가,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곳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 준 관습들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5 그러자 의회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테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을 보았다.

스테반의 연설

7 대제사장*이 스테반에게 물었다. “이 사람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오?” 2 스테반이 대답하였다. “여러 어른과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옮겨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에,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 6:5 빌립 사도가 아닌 다른 빌립을 말한다.

¶ 6:6 손을 얹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 6:9 해방 노예의 회당 그리스어로는 ‘리버디노 회당’, ‘리버디노’ 는 전에 노예였거나 부모가 노예였지만, 이제는 풀려나 자유인이 된 유대 사람들을 말한다.

* 7:1 대제사장 유대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제사장이며 지도자인 사람.

나타나셨습니다.³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향과 친척들을 떠나, 내가 일러 주는 땅으로 가거라.’^{† 4}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갈대아[‡]를 떠나 하란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⁵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뼉의 땅도 유산으로 주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⁶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들은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게 될 것이다. 그곳 사람들은 네 자손을 종으로 삼아 사백 년 동안 괴롭힐 것이다.’⁷ 그러나 나는 네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벌을 내리겠다.’^{¶ 8}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뒤에, 네 백성은 그 나라에서 나와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8}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계약의 징표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서 여드레째 되는 날에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또 야곱은 자기 아들 열두에게 똑같이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나중에 열두 가문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⁹ 그런데 이 조상들이 자기네 형제인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¹⁰ 요셉은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삼고 그에게 이집트와 자신의 온 집안을 다스리는 일을 맡겼습니다.¹¹ 그 뒤 온 이집트와 가나안에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크게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¹²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그리로 보냈습니다.¹³ 그리고 그들이 두 번째로 이집트에 갔을 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요셉의 가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¹⁴ 이렇게 된 다음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온 친족 일흔다섯 사람을 이집트로 불러왔습니다.¹⁵ 그리하여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야곱과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습니다.¹⁶ 나중에 그분들의 주검은 세겜에 있는 무덤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무덤은 아브라함이 전에 세겜에 살던 하물의 자손에게 은을 주고 사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¹⁷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지자, 이집트에 사는 우리 백성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¹⁸ 그러다가 마침내 요셉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¹⁹ 이 왕은 우리 조상들을 교묘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우리 조상에게 갓 태어난 사내 아기를 모두 내다 버리게 하여서, 사내 아기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²⁰ 그럴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아주 잘생긴 아기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석 달 동안 몰래 집에서 키웠습니다.²¹ 그러나 그 뒤에 더는 어쩔 수 없어서 아기를 밖에 내다 버리자,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 길렀습니다.²²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지혜를 다 배워서, 그가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²³ 모세는 마흔 살이 되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²⁴ 어느 날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편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이스라엘 사람의 양값을 하였습니다.²⁵ 모세는 자기의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려고 자기를 쓰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²⁶ 이튿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둘이

† 7:3 네 고향과...가거라 창 12:1.

‡ 7:4 갈대아 또는 바빌론. 메소포타미아의 남쪽에 있는 지방. 2절을 볼 것.

¶ 7:7 나는 네 자손들은...벌을 내리겠다 창 15:13-14.

§ 7:7 이런 일들이...예배하게 될 것이다 창 15:14; 출 3:12.

**7:8 시조 한 족속의 맨 위 조상.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 보시오, 두 사람은 형제가 아니오?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를 해치는 거요?’²⁷ 형제를 괴롭히던 사람이 모세를 밀치며 말하였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²⁸ 당신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셈이오?’^{† †}²⁹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나그네가 되어 살면서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³⁰ 사십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시내 산에서 가까운 광야^{‡ ‡}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불타는 덩불의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³¹ 모세는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가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다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³²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 모세는 무서워 떨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였습니다.³³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³⁴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짓밟히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그 짓놀림에서 풀어 주려고 내려왔다. 자 가거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돌려보낸다.’^{§ §}

³⁵ 이 모세가, 앞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라고 말하며 배척하였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덩불 속에 나타난 천사를 통하여, 이 모세를 통치자로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³⁶ 모세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갈대 바다에서, 그리고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보여 주었습니다.³⁷ 이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세워, 너희에게 보내 주실 것이다.’[†]
³⁸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다 같이 모여 있을 때에, 시내 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계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그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하였습니다.

³⁹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를 배척하고 마음으로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하였습니다.⁴⁰ 우리 조상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줄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그 모세라는 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⁴¹ 그들이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가져와 그 앞에 바치며,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며 즐거워하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⁴²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이 하늘에 있는 거짓 신들, 곧 별과 행성들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사십 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더냐?

⁴³ 너희는 몰록신의 장막과
너희의 신 레판의 별을 떠받들었다.

너희는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다.

† † 7:28 누가...죽일 셈이오 출 2:14.

‡ ‡ 7:30 광야 너른 들판, 거친 들, 사막 등을 일컫는 말.

¶ ¶ 7:32 나는...하나님이다 출 3:6.

§ § 7:34 네신을 벗어라...돌려보낸다 출 3:5-10.

* 7:35 출 2:14.

† 7:37 하나님께서...보내 주실 것이다 신 18:15.

‡ 7:40 아론 모세의 형으로, 첫 유대 사람 대제사장.

¶ 7:40 우리를 앞에서...모르겠습니다 출 32:1.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 너머로 쫓아 버리겠다.’⁵

⁴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본 모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⁴⁵ 이 장막을 물려받은 우리 조상들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그것을 이 땅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다윗 시대까지 이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⁴⁶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야곱의 하나님께서 머무실 집** 을 마련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청하였습니다. ⁴⁷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은 사람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⁴⁸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어떤 집에도 살지 않습니다. 예언자†† 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⁴⁹ 나 주가 말한다.

‘하늘은 내 보좌이며

땅은 내가 발을 딛는 발판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어 주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⁵⁰ 내가 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았더냐? † † †

⁵¹ 목이 굳은 백성이여!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당신네 조상들과 꼭 같아서,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⁵² 당신네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로운 분’ 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들까지 죽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그 의로운 분을 배반하고, 그분을 죽였습니다. ⁵³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 준 율법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것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스데반, 죽임을 당하다

⁵⁴ 유대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⁵⁵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 ⁵⁶ 스데반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⁵⁷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귀를 막고,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모두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 ⁵⁸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⁵⁹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⁶⁰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는 이 말을 마치고 숨을 거두었다.

⁵ 7:43 암 5:25-27.

** 7:46 야곱의 하나님...집 직역하면 ‘야곱의 집’이다.

†† 7:48 예언자 기원전 740-700경에 활동한 이사야.

††† 7:50 사 66:1-2.

8 사울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겼다.

믿는 이들에게 닥친 어려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크게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믿는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고, 사도들만 남아 있었다. ²경건한 사람 몇이 스데반을 묻고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였다. ³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없애 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믿는 이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다.

빌립, 사마리아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다

⁴그런데 사방으로 흩어진 믿는 이들이 가는 곳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⁵빌립[¶]은 사마리아의 어떤 성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⁶그곳 사람들은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는, 모두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⁷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많은 중풍병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다. ⁸그리하여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⁹그 성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얼마 동안 마술로 모든 사마리아 사람을 놀라게 하였으며, 스스로 위대한 사람인 체하고 있었다. ¹⁰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모두 시몬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큰 능력자’ 로 알려진 하나님의 능력이다!” ¹¹시몬이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따르고 있었다. ¹²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자, 남자나 여자나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¹³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과 기적을 보고 놀라서, 빌립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녔다.

¹⁴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¹⁵두 사람은 사마리아에 와서, 그곳에 있는 믿는 이들이 성령을 받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¹⁶사마리아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¹⁷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위에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¹⁸시몬은 사도들이 사람들 위에 손을 얹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내놓으며 ¹⁹말하였다.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내게도 그 능력을 주십시오.”

²⁰베드로가 시몬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당신의 돈이 당신과 함께 망하기를 바라오! ²¹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당신이 이 일에서 차지할 자리도 뉘도 없소. ²²그러니 당신의 악한 생각을 뉘우치고, 주께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주께서 당신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은 것을 용서하실지도 모를 일이오. ²³내가 보니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며,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소.”

²⁴시몬이 대답하였다. “두 분은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두 분이 말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²⁵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들러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빌립, 에티오피아 사람을 가르치다

²⁶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어서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거라.” (이 길은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광야 길이였다.) ²⁷빌립은 서둘러

¶ 8:5 빌립 일곱 집사 가운데 하나인 사람.

떠나 길을 가다가 어떤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내시[§]로서,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를 모시는 높은 관리였다. 그 사람은 여왕의 돈을 모두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²⁸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이사야*의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²⁹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저 마차에 바싹 다가서거라.”³⁰ 빌립이 그 마차 곁으로 달려가니, 그 사람이 이사야의 예언서를 읽는 소리가 들렸다. 빌립이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³¹ 그 사람이 말하였다.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빌립에게 마차로 올라와 자기 곁에 앉기를 청하였다.³² 그 사람이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으며,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어린양이 잠잠하듯이
입을 열지 않았다.

³³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

이 땅에서 그의 생애가 끝이 났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할 수 있으랴!”[†]

³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한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까?”³⁵ 빌립은 성경의 이 구절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그 사람에게 말해 주었다.

³⁶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다다르자, 그 내시가 말하였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될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³⁷ ³⁸ 그리고 그는 마차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빌립과 그 내시는 같이 물에 들어갔고,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³⁹ 두 사람이 물에서 나왔을 때 주의 성령이 갑자기 빌립을 데리고 가셨으므로, 내시는 다시 빌립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기쁨에 넘쳐 가던 길을 갔다.⁴⁰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라는 곳에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빌립은 아소도에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그 지방의 모든 마을에 들러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사울, 예수의 제자가 되다

9 한편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살기등등하여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² 다마스쿠스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의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마스쿠스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찾아내면, 남자는 여자든 모두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는 것이었다.

³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⁴ 사울은 땅에 엎어져서 어떤 목소리가 그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⁵ 사울이 물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목소리가 대답하였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⁶ 이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그곳에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 8:27 내시 고향을 제거한 남자. 통치자들은 흔히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다.

* 8:28 이사야 기원전 742-701년에 유대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 8:33 사 53:7-8.

‡ 8:37 37절 뒤에 만들어진 몇몇 그리스어 사도행전 사본에 다음과 같은 37절이 있다. “빌립이 대답하였다. ‘당신이 마음을 다해서 믿는다면 세례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 내시가 말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7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도 그 소리를 듣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8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함께 가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까지 데리고 갔다. 9 사울은 사울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10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다. 그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11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곧은 거리’ 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을 찾아가거라. 가서, 사울이라는 이름의 다소 사람을 찾아가. 사울은 지금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다. 12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손을 얹어 주어 다시 눈이 보이게 되는 환상을 보았다.”

13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14 더구나 그는 지금 높은 제사장들에게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 갈 권한을 받아 가지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15 주께서 다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을 전할 사람으로 내가 뽑은 그릇이다. 16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지 그에게 보여 주겠다.”

17 그래서 아나니아가 유다의 집으로 갔다. 그는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하였다. “사울 형제, 주께서 나를 그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그대가 이곳으로 오는 길에 그대에게 나타나셨던 예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가 다시 보게 되고 성령을 가득히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18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19 그러고 나서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얻었다.

사울, 예수에 관해 증언하기 시작하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 20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21 사울이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해치던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예수의 제자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높은 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었던가?”

22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여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사울, 유대 사람에게서 도망치다

23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 24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켰다. 25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바구니에 담아, 성벽에 난 구멍으로 바구니를 달아 내렸다.

사울, 예루살렘으로 가다

26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사울이 정말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였다. 27 그러자

¶ 9:11 유다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가 아님.

§ 9:14 당신을 믿는 글자 그대로의 뜻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 말은 예수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함으로써, 예수에 대한 믿음을 보여 주는 것을 뜻한다.

**9:15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로 데려갔다. 그는 사도들에게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것을 말해 주었다.

²⁸ 그렇게 하여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사이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다. ²⁹ 그는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자, ³⁰ 믿는 이들이 그것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시 다소로 보냈다.

³¹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있는 교회는 안정이 되어서 그 기쁨을 든든히 세워 갔다. 그리고 성령의 격려를 받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며, 그 수가 늘어 갔다.

베드로, 룻다와 옴바에 가다

³² 베드로는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있는 믿는 이들을 찾아가다. ³³ 그는 거기에서 중풍병으로 팔 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³⁴ 베드로가 애니아를 보고 말하였다. “애니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 주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애니아는 곧바로 일어났다. ³⁵ 룻다와 샤론 평야에 사는 사람들이 애니아의 일을 보고 주 예수께 돌아와 믿었다.

³⁶ 옴바에는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살고 있었다. (다비다는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이다.) 다비다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³⁷ 베드로가 룻다에 있을 즈음에 다비다가 병에 걸려 죽었다. 사람들이 다비다의 주검을 씻어서 이층 방에 놓혀 놓았다. ³⁸ 룻다는 옴바에서 가까웠다. 그래서 옴바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에게 두 사람을 보내며 청하였다. “제발 빨리 좀 와 주십시오!” ³⁹ 베드로는 곧 그 두 사람을 따라 옴바로 갔다. 그가 도착하자 제자들은 그를 이층 방으로 데리고 갔다. 모든 홀어미들이 베드로를 에워싸고 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 있을 때에 만들어 준 겹옷과 속옷들을 보여 주었다. ⁴⁰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나서 죽은 여자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하였다. “다비다, 일어나시오!” 다비다는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⁴¹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다비다가 일어나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는 믿는 이들과 홀어미들을 불러들여,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보여 주었다. ⁴² 이 사실이 온 옴바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⁴³ 베드로는 옴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한동안 머물렀다.

베드로와 고넬료

10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 라는 로마 군대의 백인대장[‡] 이었다. ²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 고넬료는 가난한 유대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으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³ 어느 날 오후 세 시쯤에 고넬료는 환상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와서 “고넬료야!” 하고 불렀다.

⁴ 고넬료는 두려운 마음으로 천사를 바라보며 물었다.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와 네가 베푼 자선을 알고 계시며,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⁵ 이제 옴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⁶ 시몬은 바닷가에 사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⁷ 고넬료는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하인 두

[†] 9:43 무두장이 짐승의 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뽑고,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

[‡] 10:1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

사람과 그의 전속 부관 가운데서 신앙심이 깊은 사람 하나를 불렀다. ⁸ 고넬로는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그들에게 모두 이야기한 다음, 그들을 옴바로 보냈다.

⁹ 이튿날 정오쯤, 그들이 옴바 가까이에 이르렀을 즈음에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 [¶] 위로 올라갔다. ¹⁰ 그는 시장기가 들어 무엇을 좀 먹고 싶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무아지경에 빠져 들어갔다. ¹¹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보자기는 네 귀퉁이가 들려 내려오고 있었다. ¹² 그 보자기에는 네 발 달린 온갖 짐승과, 파충류의 동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이 들어 있었다. ¹³ 그리고 어떤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¹⁴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순결하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¹⁵ 그 목소리가 두 번째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¹⁶ 이런 일이 세 번 거듭되고 나서 그 보자기는 곧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¹⁷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며 어리둥절해 있는데,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내어 바로 그 집 앞에서 있었다. ¹⁸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그 집에 묵고 있느냐고 물었다.

¹⁹ 베드로가 아직도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²⁰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망설이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²¹ 베드로는 아래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여러분이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²² 그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저희는 고넬로 백인대장 [§] 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분은 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며, 모든 유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천사에게서,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니다.”

²³ 베드로는 그들을 안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옴바의 믿는 이들 몇이 함께 갔다. ²⁴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닿았다. 고넬로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모으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²⁵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서자, 고넬로는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²⁶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어서게 하며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저도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²⁷ 베드로는 고넬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²⁸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과 사귀거나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순결하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게 보여 주셨습니다. ²⁹ 그리하여 여러분이 저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저는 두말하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여쭙어 보아도 되겠습니까?”

³⁰ 그러자 고넬로가 대답하였다. “사흘 전* 이맘때쯤 저는 집에서 오후 세 시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제 앞에서 서서 ³¹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고,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자선을 기억하셨다. ³² 옴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시몬은 바닷가에 사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³³ 그래서 저는 곧 선생님께 사람들을 보냈고,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 **10:9 지붕** 팔레스틴 지방의 지붕은 평평하다.

[§] **10:22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의 군대의 장교.

* **10:30 사흘 전** 그리스어 사본에는 ‘나흘 전’. 그들은 당일도 하루로 쳤다.

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선생님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다

³⁴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³⁵ 당신을 두려워하고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받아 주신다는 말이 정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³⁶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소식, 곧 모든 사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하신 평화의 기쁜 소식을 알고 계십니다. ³⁷ 그리고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한 뒤부터,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걸쳐 일어난 일들도 알고 계십니다. ³⁸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부어 주시고,[‡] 그분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훌륭한 일을 하시고 악마의 세력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신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³⁹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직접 보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⁴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흘째 되는 날에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⁴¹ 그러나 그분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정해 놓으신 우리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⁴²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⁴³ 모든 예언자들은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사람은 모두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다

⁴⁴ 베드로가 아직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⁴⁵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 사람[¶] 신자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⁴⁶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⁴⁷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⁴⁸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베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

11 사도들과 유대 온 지역에 있는 형제들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들었다. ² 그리하여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유대 사람 신자들은 베드로를 꾸짖어 ³ 말하였다.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소.”

⁴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⁵ “저는 욕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무아지경 가운데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으로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보자기는 네 귀퉁이가 들려서 제가 있는 곳으로 내려졌습니다. ⁶ 제가 그 안을

[†] 10:37 요한 세례자 요한. 그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 10:38 성령과 권능을 부어 주시고 글자 그대로의 뜻은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사람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었다.

[¶] 10:45 유대 사람 글자 그대로의 뜻은 ‘할례 받은’.

[§] 10:45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들여다보니, 땅 위의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파충류의 동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⁷ 그리고 제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⁸ 저는 ‘주님,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순결하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⁹ 그러자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두 번째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¹⁰ 이런 일이 세 번 거듭되고 나서,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¹¹ 바로 그 순간에 가이사랴에서 제게 보낸 세 사람이 내가 머물고 있던 집에 와서 멈추었습니다.¹² 성령께서는,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섯 형제도 저와 함께 떠나서, 우리를 부르러 보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¹³ 그 사람은 자기 집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옴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이리로 데려오너라.¹⁴ 시몬은 너와 네 온 집안을 구원할 소식을 전해 줄 것이다.’¹⁵ 제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처음** 내리시던 때와 꼭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¹⁶ 그때에 주께서,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¹⁷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¹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기쁜 소식이 안디옥에 전해지다

¹⁹ 스테반 때에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²⁰ 그러나 이들 가운데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안디옥에 오자, 그리스 말을 하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였다.²¹ 주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시니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²² 예루살렘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²³ 바나바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신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모두들 마음을 다하여 주께 충성하라고 권하였다.²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선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²⁵ 그 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갔다.²⁶ 그는 사울을 만나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왔다. 두 사람은 일 년 동안 줄곧 그곳 교회의 믿는 이들과 지내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교인’이라고 불렸다.

²⁷ 이 무렵에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²⁸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야가보가 일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정말로 기근이 들었다.^{† †}²⁹ 제자들은 제각기 능력에 따라서 유대에 있는 믿는 이들을 돕기로 결정하였다.³⁰ 그들은 이 구제금을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겨서, 장로들에게 전하게 하였다.

** 11:15 처음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오순절 때를 말한다(행 2장).

† † 11:28 글라우디오 황제 때...기근이 들었다 글라우디오는 주후 41-54년에 로마를 다스린 황제이고,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 서기 46년에 있었던 기근을 말하는 것 같다.

헤롯 아그립바, 교회를 박해하다

12 이 무렵에 헤롯왕 † † 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에게 박해의 손길을 뻗었다.² 그는 먼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³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이 일로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서둘러 베드로도 잡아넣었다. 이 일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 기간에 일어났다.⁴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다. 그리고는 네 명씩 짝을 지은 네 무리의 경비병들에게 베드로를 지키게 하였다. 유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으로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⁵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 감옥을 나간다

⁶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에 끌어내려는 바로 그 전 날 밤의 일이었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여서 두 병사들 사이에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병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다.⁷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 앞에 서자, 감방 안에 환한 빛이 가득하였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말하였다. “빨리 일어나라!” 그러자 베드로의 두 손목에서 쇠사슬이 벗겨졌다.⁸ 천사가 말하였다. “허리띠를 두르고 신을 신어라.” 베드로가 천사의 말을 따라 그대로 하였다. 천사가 다시 말하였다. “겉옷을 걸치고 나를 따라오너라.”⁹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고 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은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¹⁰ 천사와 베드로가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시내로 나가는 철문 앞에 이르니, 철문이 저절로 열렸다. 둘이 밖으로 나와서 거리 하나를 지났을 때 갑자기 천사가 사라져 버렸다.

¹¹ 그제야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혼잣말을 하였다. “이제야 알겠구나. 주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구해 주시고, 유대 백성이 내게 닥치리라고 기대하고 있던 모든 일에서 나를 구해 내셨구나.”

¹²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¹³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나왔다.¹⁴ 로데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은 열지도 않고 안으로 달려 들어가,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고 알렸다.

¹⁵ 사람들은 로데에게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래도 로데가 자기의 말이 사실이라고 우기자, 그들은 “그렇다면 베드로의 천사임이 틀림없다.” 라고 말하였다.

¹⁶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사람들이 문을 열었다. 그들은 정말로 베드로가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¹⁷ 베드로는 손을 들어서 사람들을 조용히 하도록 한 다음에, 주께서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서 꺼내 주셨는지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 일을 알려 주시오.” 하고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¹⁸ 아침이 되자 베드로가 없어진 일 때문에 경비병들 사이에 작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다.¹⁹ 헤롯은 부하들을 풀어 베드로를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경비병들을 불러 심문한 다음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나서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한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헤롯의 죽음

²⁰ 헤롯 ¶ ¶ 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몹시 화나 있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사절단을 보내어 헤롯을 만나 보게 하였다. 그들은 헤롯의 시종인 블라스도스를 설득한 다음,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해를 요청하였다. 그들이 사는 지방은 왕의 영토에서 식량 공급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 † 12:1 헤롯왕 헤롯 아그립바 1세이며, 헤롯대왕의 손자.

¶ ¶ 12:20 헤롯 헤롯 아그립바 1세이며, 헤롯대왕의 손자.

21 정한 날이 되어 헤롯은 임금이 입는 곤룡포 § 5를 떨쳐 입고,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22 그러자 사람들이 외쳐 댔다.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이다!” 23 곧바로 주의 천사가 헤롯을 치니, 그는 벌레들에게 파먹혀 죽고 말았다.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24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 갔다.

25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할 일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갔다.

바나바와 사울, 특별한 사명을 받다

13 안디옥교회에는 몇 사람의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었다. 2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길 일이 있어서 그들을 불렀다.”

3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마치고 두 사람에게 손을 얹은† 다음, 두 사람을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 키프로스에 가다

4 두 사람은, 이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간 다음, 그곳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⁵로 갔다. 5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유대 사람의 회당을 두루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알렸다. 요한은 그들을 따라다니며 돕는 일을 하였다.

6 그들이 온 섬을 돌다가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 마술을 부리는 거짓 예언자를 만났다. 그는 바예수라는 유대 사람이었다. 7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늘 곁에 두는 사람이었다. 총독은 똑똑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였다. 8 그런데 엘루마라고 하는 그 마술사는 사울과 바나바를 반대하였다. 엘루마는 바예수라는 이름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이름이다. 그는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9 그러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엘루마를 노려보고 10 말하였다. “너는 악마의 자식이고 모든 정의의 원수이다. 너는 온갖 사기와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 네가 주의 곧은 길을 굽게 만드는 짓을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11 이제 주의 손이 너를 내리치실 것이니, 네가 눈이 멀어 한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뒤덮었다. 그는 여기저기를 더듬거리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 줄 사람을 찾았다. 12 총독은 그 일을 보고 주를 믿었다. 그는 주에 관한 가르침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바울과 바나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다

13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다. 그러나 요한은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14 일행은 다시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닿았다.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15 율법서와 예언서를 큰 소리로 읽고 난 다음, 회당의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어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과 같이 청하였다. “두 분 형제께서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격려의 말씀이 있으시면 들려주십시오.”

16 그리하여 바울이 일어나 손을 들어 보이고‡ 나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형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방인 여러분, 제 말을 들어 주십시오. 17 이스라엘 백성의

§ 5 12:21 곤룡포 또는 ‘용포’. 임금이 입던 정복.

* 13:1 분봉왕 그리스어로는 ‘테트라아르케스’ (‘영토의 1/4 통치자’ 라는 뜻).

† 13:3 손을 얹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맡기신 특별한 임무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나타낸다.

‡ 13:16 손을 들어 보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려는 몸짓.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조상을 택하셨습니다. 이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머무는 동안에 그들을 큰 민족으로 키워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그 나라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¹⁸ 광야에서는 사십 년 동안 그들이 저지른 온갖 잘못도 참아 주셨습니다. ¹⁹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일곱 민족을 멸하시고, 그들의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²⁰ 이 모든 일이 약 사백오십 년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사무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²¹ 그들이 왕을 세워 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가문 사람인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셨고, 사울은 사십 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²² 그런 뒤에 사울을 물러나게 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마음에 두었던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다. 그는 내가 그에게 바라는 일을 할 것이다.’ ²³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이십니다. ²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²⁵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도 없다.’

²⁶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²⁷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을 깨닫지도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²⁸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구실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를 졸라서 그분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²⁹ 그들은 성경에 예수께 일어나리라고 쓰여 있는 일들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습니다. ³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리셨으며, ³¹ 그분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들에게 그분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³² 우리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셨던 약속을, ³³ 그 조상의 자손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킴으로써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시편 둘째 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³⁴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두고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윗에게 약속했던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

³⁵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를

썩도록 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

³⁶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는 조상들과 함께 묻혔고, 그의 몸은 썩고 말았습니다. ³⁷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신 이는 썩지

¶ **13:23** 구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

§ **13:24** 요한 세례자 요한. 그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선포하였다(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 **13:33** 시 2:7.

† † **13:34** 사 55:3.

‡ ‡ **13:35** 시 16:10.

않으셨습니다. ³⁸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곧 그분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³⁹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결코 죄에서 풀려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분을 통하여 모든 죄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⁴⁰ 예언자들이 한 말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⁴¹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며 망해 버려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⁴² 두 사람이 회당을 떠날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그 일에 관하여 더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⁴³ 회당의 모임이 끝난 뒤에, 많은 유대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두 사람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믿음을 굳게 지켜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권고하였다.

⁴⁴ 다음 안식일에는 도시의 거의 대부분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 ⁴⁵ 유대 사람들은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시샘이 북받쳐서 바울이 하는 말을 반대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⁴⁶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거침없이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에게 갑니다. ⁴⁷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이방 사람의 빛으로 삼았다.

그것은, 네가 땅 끝까지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려는 것이다.’[†]

⁴⁸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주를 믿었다.

⁴⁹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⁵⁰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도시의 귀부인들과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을 자기네 지방에서 내쫓았다. ⁵¹ 두 사람은 그들에게 항의하는 뜻에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⁵²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에서 새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울과 바나바, 이고니온에 가다

14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늘 하던 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이 어찌나 말씀을 잘 전하였던지 많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믿었다. ² 그러나 믿기를 거부하는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부추겨서 믿는 이들을 미워하게 하였다. ³ 그리하여 두 사람은 꽤 긴 시간을 그곳에 머물면서 주를 위해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께서는 두 사람을 통해서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므로써, 두 사람이 전하는 당신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⁴ 그 도시의 사람들은 두 패로 나뉘어, 더러는 유대 사람들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들의 편을 들었다.

¶¶ 13:41 합 1:5.

§§ 13:43 개종 종교를 딛 것으로 바꿔 믿음.

* 13:46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 13:47 사 49:6.

‡ 13:51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리다 일종의 경고로서, 앞으로는 그 사람들과 말도 하지 않겠다는 표시이다.

⁵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고 돌로 쳐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⁶ 두 사람이 그 낚새를 알고는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가까이로 피하였다. ⁷ 두 사람은 그곳에서 계속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바울,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다

⁸ 루스드라에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앉아 있었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⁹ 그 사람이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바울은 그 사람을 똑바로 보고서, 그에게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다. ¹⁰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하였다. “당신의 발로 일어서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¹¹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¹²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바울이 주로 설교를 맡아 하였기 때문이다. ¹³ 바로 그 성 바깥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 그 신전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꽃을 엮어 만든 목걸이를 성문으로 가져왔다. 제사장과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그것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다.

¹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달려가 이렇게 소리쳤다. ¹⁵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쓸데없는 우상을 섬기는 짓들을 그만두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을 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¹⁶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들 나뉠이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¹⁷ 그러나 당신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 주지 않은 채로 여러분을 내버려 두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좋은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 주십니다.” ¹⁸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겨우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¹⁹ 그러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을 꼬드기어 자기들 편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친 다음,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성 바깥으로 끌어냈다. ²⁰ 그러나 제자들이 달려와 둘러섰을 때에 바울은 깨어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다

²¹ 두 사람은 더베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²² 그곳에서 두 사람은 제자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속하여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어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²³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운 다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주께 그 장로들을 맡겼다.

²⁴ 두 사람은 비시디아를 지나 밤빌리아로 갔다. ²⁵ 그리고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앗달리아로 내려갔다. ²⁶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갔다. 안디옥은, 믿는 이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말씀을 전하라고 내보냈던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온 것이다.

¶ 14:12 제우스 그리스도의 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신.

§ 14:12 헤르메스 또 다른 그리스도의 신. 그리스도 사람들은 헤르메스가 다른 신들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맡은 신이라고 믿었다.

27 두 사람은 안디옥에 도착하여 온 교회의 믿는 이들을 모아 놓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하신 일들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을 알렸다. 28 두 사람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렀다.

예루살렘 회의

15 유대에서 몇 사람이 내려와서 이방 사람 신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 “여러분은 모세의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²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큰 다툼과 논쟁이 벌어졌다. 안디옥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하였다. 그리고 다른 믿는 이들도 몇 사람 팔려 보내기로 하였다. 이 문제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려는 것이었다.

³ 그들은 교회의 보냄을 받고^{††} 길을 떠나,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돌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모든 믿는 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⁴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해 주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⁵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믿게 된 몇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말하였다.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여야 합니다.”

⁶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려고 모였다. ⁷ 오랫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저를 택하셔서, 저를 통해 이방 사람들이 기쁜 소식의 말씀을 듣고 믿도록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⁸ 그리고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방 사람들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⁹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¹⁰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이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무거운 멍에^{‡‡}를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합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조상들도 질 수 없었던 멍에입니다. ¹¹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¹² 그러자 온 회중이 입을 다물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들을 통하여 행하신 기적과 놀라운 일들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¹³ 그들이 이야기를 마친 뒤에 야고보가 입을 열었다. “형제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¹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한 백성을 뽑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처음에 어떻게 보이셨는지 시몬^{¶¶}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¹⁵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과 들어맞습니다. 예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¹⁶ ‘이 뒤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나는 그 집의 허물어진 곳을 다시 지어서

새 집으로 지어 놓겠다.

¹⁷ 그리하여 모든 사람

곧 내가 내 백성으로 부른 모든 이방 사람까지도

나 주를 찾을 것이다.

** 14:27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 15:3 교회의 보냄을 받고 이 말은 ‘교회에서 그들의 여행에 필요한 식량과 재정적 지원을 받고’ 라는 뜻이다.

‡‡ 15:10 멍에 여기서서는 유대교의 율법을 말함.

¶¶ 15:14 시몬 베드로.

이 일들을 이루는 주께서 말씀하신다 § 5.

18 주께서는 이 일들을 오래 전부터 알게 하셨다.*

19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고, 부도덕한 성 관계를 갖지 말며, 목 졸라 죽인 짐승이나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1 예로부터 어느 도시어나 모세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러한 법들이 유효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22 그리하여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의 동의를 얻어서, 몇 사람을 대표로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형제를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뽑아 보냈다. 23 그리고 그들 편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의 형제들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인 형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24 우리 가운데서 몇 사람이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5 우리는 대표를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26 바나바와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27 그래서 우리는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두 사람은 이 편지에 적힌 내용을 직접 말로도 확인하여 줄 것입니다. 28 다음과 같이 꼭 필요한 것 몇 가지 말고는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께도 우리에게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29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도덕한 성 관계를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멀리하시면 아주 잘 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30 그들은 보냄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온 회중을 모아 놓고 그 편지를 전해 주었다.

31 사람들은 그 편지를 읽고, 용기를 주는 내용에 무척 기뻐하였다. 32 예언자인 유다와 실라는 많은 말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힘을 주었다. 33 두 사람은 한동안 그곳에서 지낸 뒤에, 형제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인사를 받고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34 †

35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한동안 머물렀다. 두 사람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다

36 얼마쯤 지난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모든 도시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37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어하였다. 38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 계속 함께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39 이 일을 두고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툰 끝에, 결국 두 사람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 40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났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빌며 두 사람을 보냈다. 41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 가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튼튼하게 해 주었다.

§ 5 15:17 암 9:11-12.

* 15:18 사 45:21.

† 15:34 34절 어떤 그리스어 사본들에는 다음과 같은 34절이 있다. “그러나 실라는 그곳에 남기로 하였다.”

디모데가 바울과 실라와 함께 가다

16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였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²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믿는 이들이 모두 디모데를 좋게 말하고 있었다. ³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 고장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⁴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믿는 이들에게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을 전해 주며, 그것들을 잘 지키라고 일렀다. ⁵ 그리하여 그곳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 갔다.

바울, 마케도니아로 오라는 부르심을 받다

⁶ 바울과 그의 일행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거쳐 갔으나, 성령께서 그들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⁷ 그들이 무시아의 경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⁸ 그리하여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다. ⁹ 그곳에서 바울에게 밤중에 환상이 나타났다.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었다. ¹⁰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하였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루디아의 개종

¹¹ 우리는 배를 타고 드로아를 떠나 곧장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이튿날 네압볼리로 갔다. ¹² 그리고 다시 빌립보로 갔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이고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빌립보에서 며칠을 묵었다.

¹³ 우리는 안식일에 성문 밖으로 나가,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으리라고 짐작되는 강가를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 있던 여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¹⁴ 그 가운데에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두아디라라는 도시 출신으로 값비싼 보라색 옷감 장사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루디아가 듣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게 하셨다. ¹⁵ 루디아와 그 집안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루디아가 우리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였다. 그 여자는 “저를 주를 믿는 사람으로 여기시면, 제 집에 와 계십시오.” 하고 말하며 우리를 설득하였다.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히다

¹⁶ 어느 날 우리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을 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났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여 주고 있었다. ¹⁷ 그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분들은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¹⁸ 그 여종이 여러 날을 두고 그렇게 하자, 바울은 괴로운 나머지 몸을 돌려 그 귀신에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가거라!” 그러자 그 귀신이 곧바로 나갔다.

¹⁹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에게서 돈벌이할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 장터에 있는 관리들 앞으로 끌고 갔다. ²⁰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치안 판사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로서, 우리 도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 16:6 아시아 소아시아의 서부 지역.

[¶] 16:6 말씀 또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찾아 볼 것.

[§] 16:16 귀신 마귀에게서 나온 영으로서, 특별한 것을 알게 해주는 신.

21 이들은 우리 로마 시민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법에 어긋난 관습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22 많은 사람이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였다. 치안 판사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로 때리라고 명령하였고, 23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매질하여 옥에 넣고는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24 간수는 그 명령을 받고 두 사람을 맨 안쪽에 있는 감방에 넣고, 두 발에 나무 차꼬**를 채워 놓았다.

25 한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다른 죄수들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26 그때 갑자기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 어찌나 심한 지진이던지 감옥이 서 있는 터가 다 흔들렸다. 곧 감옥 문들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벽에 묶어 둔 사슬들이 모두 벽에서 풀려났다. 27 간수는 잠에서 깨어나 문들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모두 달아난 줄로 알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였다. 28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모두 여기 그대로 있으니,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

29 간수는 등불을 가져오라고 소리친 다음,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30 그러고는 두 사람을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였다. “두 분 선생님, 제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31 두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32 그리고 간수와 그 집안사람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33 간수는 그날 밤 그 늦은 시각에 두 사람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고, 그 자리에서 온 집안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 34 간수는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35 아침이 되자 치안 판사는 “그 사람들을 풀어 주어라.” 라고 말하며 부하들을 보냈다.

36 그래서 간수는 바울에게 “치안 판사가 선생님들을 풀어 주라고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와서 평안히 가십시오.” 하고 치안 판사의 말을 전하였다.

37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치안 판사는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매질하였습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풀어 주겠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십시오!”

38 부하들은 그 말을 치안 판사에게 전하였다. 치안 판사는 두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겁이 나서, 39 두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그 도시에서 떠나 달라고 부탁하였다. 40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형제들을 격려하고 길을 떠났다.

바울과 실라, 데살로니가로 가다

17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곳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하나 있었다. 2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세 번의 안식일에 걸쳐 그 회당에 나가서, 유대 사람들과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3 바울은 성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바울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4 유대 사람 몇이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을 따랐다.

** 16:24 차꼬 기다란 두 개의 토막나무 사이에 구멍을 파서, 죄수의 두 발목을 그 구멍에 넣고 자물쇠로 채우게 되어 있는 옛 형구.

†† 16:32 말씀 또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을 찾아 볼 것.

‡‡ 16:37 로마 시민 로마법에 의하면 재판을 하기 전에는 로마 시민에게 매질을 할 수 없었다.

¶¶ 17:3 성경 구약 성경.

⁵ 그러자 믿지 않는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이 생겼다. 그들은 장터의 건달 몇 사람과 함께 떼를 지어 소란을 피웠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서 사람들 앞으로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⁶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끌어다가 시의 관리들 앞에 세웠다. 그들은 “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자들이 이곳에도 왔습니다. ⁷ 야손이 그런 자들을 자기 집에 손님으로 맞아들여 대접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모두들 황제의 명령을 거스르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⁸ 군중과 시의 관리들은 그 말을 듣고 당황하였다. ⁹ 그들은 야손과 다른 믿는 이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나서야 그들을 풀어 주었다.

바울과 실라, 베레아로 가다

¹⁰ 형제들은 그날 밤,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베레아에 도착하여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갔다. ¹¹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열심히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¹² 이리하여 유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또 신분이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그리스 남자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었다. ¹³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리로 와서 무리를 부추겨 소동을 일으켰다. ¹⁴ 형제들은 곧바로 바울을 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하였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¹⁵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안내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기에게 오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바울, 아테네에 가다

¹⁶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도시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무척 괴로웠다. ¹⁷ 그리하여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 사람들을 만나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날마다 광장에 나가 그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도 토론을 벌였다. ¹⁸ 몇몇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의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무식한 떠버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이 자가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선전하는 모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와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¹⁹ 그들은 바울을 데려다가 아레오바고 의회에 세워 놓고 말하였다. “당신이 전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소? ²⁰ 당신은 우리 귀에 이상하게 들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소.” ²¹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에 사는 외국인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 듣거나 이야기하는 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²²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의회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종교심이 깊은 분들입니다. ²³ 저는 아테네 시내를 두루 거닐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글씨가 새겨진 제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분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²⁴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신전에서는 살지 않으십니다. ²⁵ 그리고 그분에게는 사람이 채워 드려야 할 만큼 무슨 부족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십니다. ²⁶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서 모든 인류를 내시어 온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시대와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²⁷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지만 하면 만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²⁸ 그리고 여러분의 시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²⁹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분을 우상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상은 인간이 금이나 은이나 돌을 가지고 기술과 상상력으로 만들어 낸 것일 따름입니다. ³⁰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리석음을 눈감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상을 떠나 당신에게 돌아오라고 모든 곳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³¹ 하나님께서는 정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심판의 일을 맡으실 분도 뽑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이 일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³² 바울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³³ 그렇게 되자 바울은 의회를 떠났다. ³⁴ 몇몇 사람이 바울의 편이 되어 믿는 이들이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의회 ^{§ §} 의원인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부인과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바울, 고린도에 가다

18 그 뒤,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² 바울은 그곳에서 본도 출신의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을 로마를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내인 브리스길라와 함께 그 즈음에 이탈리아를 떠난 사람이었다.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다. ³ 그들도 바울과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묵으면서 같이 일하였다. ⁴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썼다.

⁵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오자 바울은,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며, 오로지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 ⁶ 유대 사람들이 자기 말에 반대하고 욕설을 퍼붓자, 바울은 이에 항의하여 옷의 먼지를 털어 버리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⁷ 바울은 그곳을 떠나 디디우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다.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회당옆에 집이 있었다. ⁸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이 주를 믿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들은 많은 고린도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⁹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¹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려고 네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¹¹ 그리하여 바울은 일 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 § **17:34 아레오바고 의회** 아테네의 중요한 지도자들로 구성된 의회. 이들은 종교 관습을 포함한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자주 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 **18:2 글라우디오 황제** 기원후 41-54년에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

† **18:5 말씀** 또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찾아 볼 것.

‡ **18:8 회당장**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성경을 공부하고 회의를 하던 장소인 회당의 책임자.

¶ **18:11 말씀** 또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찾아 볼 것.

바울, 갈리오 앞으로 끌려가다

12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들이 한 때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갔다. 13 그들은 “이 자가 사람들에게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4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일이 어떤 잘못이나 중대한 범죄에 관한 문제라면 내가 여러분의 고발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15 그러나 이 문제는 말과 이름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한 다툼이므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사건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16 그는 이렇게 말하고 그들을 법정 밖으로 내쫓았다.

17 그들은 회당장소스데네를 붙잡아다가 법정 앞에서 매질하였다. 그런데도 갈리오는 그 일에 조금도 마음 쓰지 않았다.

바울, 안디옥으로 돌아가다

18 바울은 얼마 동안 고린도에 더 머물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믿는 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배를 타고 시리아를 향해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과 함께 떠났다. 바울은 떠나기에 앞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19 그것은 전에 하나님께 서약한 일 때문이었다. 20 그들이 에베소에 도착하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떼어 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하였다. 21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좀 더 그곳에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였다. 22 그는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는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23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인사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24 그는 안디옥에서 한동안 지내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의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었다.

아폴로가 에베소와 아가야에 가다

25 아폴로라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 사람이 에베소로 왔다. 그는 거침없이 말을 잘 하고, 힘 있게 성경**을 가르쳤다. 26 그는 주의 ‘도’ 를 배워 알고 있었으며,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며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하였다. 27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따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에 대해 더 적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28 아폴로가 아가야‡‡로 가고 싶어하였다. 그래서 에베소의 형제들이 그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쪽에 있는 제자들에게 아폴로를 반갑게 맞아 달라는 편지를 썼다. 아폴로는 아가야에 도착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29 그가 공중 토론에서,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힘 있게 증명하여 유대 사람들을 여지없이 논박했기 때문이다.

§ 18:18 머리를 깎았는데 유대 사람들은 머리를 깎음으로써, 하나님께 맺은 특별한 서약의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표시하였다.

** 18:24 성경 구약 성경.

†† 18:25 요한 세례자 요한.

‡‡ 18:27 아가야 그리스의 남쪽 지방.

바울, 에베소에 가다

19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소아시아의 내륙 지방을 거쳐 에베소로 갔다. 그는 그곳에서 몇몇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²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이 믿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³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⁴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나타내는 세례였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가르쳤는데, 그분이 곧 예수이십니다.”

⁵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⁶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렸으며, 그들은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다. ⁷ 모두 합해 열두 사람쯤 되었다.

⁸ 바울은 석 달 동안 회당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유대 사람들과 토론도 하고, 그들이 알아듣도록 설명도 하였다. ⁹ 그러나 어떤 유대 사람들은 더욱 마음이 굳어져서, 믿으려 하지도 않고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도’ 를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원으로 가서 날마다 토론을 벌였다. ¹⁰ 두 해를 계속하는 동안에 아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

¹¹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¹²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서 앓는 사람에게 얹기만 하여도 병이 나았으며, 악한 귀신들이 떠나갔다.

¹³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며 떠돌아다니는 유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빌려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 하였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하였다. ¹⁴ 높은 유대 사람 제사장인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¹⁵ 어느 날 귀신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누구냐?”

¹⁶ 그러고 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덤벼들어 모두를 짓눌러 이겨 버렸다. 그들은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¹⁷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 예수의 이름이 더욱 영광을 얻게 되었다. ¹⁸ 그리고 믿게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의 악한 행실을 숨김없이 고백하였다. ¹⁹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책을 모아 놓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 버렸다. 그 책값을 모두 계산해 보니 오만 δρα크마[¶]나 되었다. ²⁰ 이렇게 주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고, 더 큰 힘을 떨쳤다.

¶ **19:3** 요한 세례자 요한.

§ **19:6** 다른 언어로 또는 ‘방언으로’.

* **19:6** 예언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

† **19:10** 아시아 소아시아의 서부 지역을 말함.

‡ **19:10**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 **19:19** δρα크마 1 δρα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인 은돈 한 닢이었다.

§ **19:20** 말씀 또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을 찾아 볼 것.

바울, 여행 계획을 세우다

²¹ 이런 일들이 있는 뒤에,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²²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돕던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²³ 그 무렵 주의 ‘도’ 를 둘러싸고 큰 소동이 일어났다. ²⁴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있었는데, 그는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전 모형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 그 밑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 ²⁵ 데메드리오는 이 사람들과 또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모아 놓고 말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아시피 우리는 이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²⁶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들은 대로, 이 바울이라는 자가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이 자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들은 정말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²⁷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사업이 그 명성을 잃게 될 뿐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업신여김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 아시아와 세계가 받들어 섬기는 여신의 위대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²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에베소인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시다!” 하고 소리쳤다. ²⁹ 그래서 도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³⁰ 바울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말하려 하였으나 제자들이 말렸다. ³¹ 바울과 가까이 지내던 몇몇 아시아 지방 장관들도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극장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³² 그러는 사이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 때문에 모였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 ³³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 라는 사람을 앞에 내세우자, 무리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에게 자기들이 모인 까닭을 일러주었다. 알렉산더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유대 사람들을 변호하려고 하였다. ³⁴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두 시간 동안이나 한 목소리로 “에베소인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시다!” 하고 외쳐댔다.

³⁵ 에베소 시의 서기관이 우리를 조용하게 하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에베소 시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석상^{¶¶}을 모신 도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³⁶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합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³⁷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이리로 불러들여 왔지만, 이 사람들은 신전에서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습니다. ³⁸ 우리에게는 재판정도 있고 재판관들도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와 그를 도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걸어서 고발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재판정을 찾아가십시오. 거기 가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게 하십시오. ³⁹ 그밖에 더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열리는 합법적인 집회에 나오십시오. 거기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⁴⁰ 오늘 있었던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쉽게 폭동죄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 19:22 아시아 소아시아의 서부 지역을 말함.

†† 19:24 아데미 여신 소아시아 사람들이 섬기던 그리스의 여신.

‡‡ 19:33 알렉산더 이 사람이 누구이며, 그가 바울의 친구인지 적인지도 확실히 알 수 없다.

¶¶ 19:35 신성한 석상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여 신으로 섬기던 운석을 말하는 것 같다.

§§ 19:37 이 사람들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여러 사람이 모여 소란을 피운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까닭이 전혀 없었습니다.”⁴¹ 그는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을 흠어 보냈다.

바울,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로 가다

20 소동이 그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는 그들을 위로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²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여러 곳을 거쳐 가면서 여러 말로 그곳의 믿는 이들을 격려하고 그리스로 갔다.³ 바울은 그곳에서 석 달을 지낸 뒤,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칠 음모를 꾸몄다. 그래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하였다.⁴ 그때에 바울과 같이 간 사람은,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였다.⁵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렸다.⁶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 지난 다음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하여 그들과 만나 그곳에서 이레를 지냈다.

바울, 마지막으로 드로아를 방문하다

⁷ 일요일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이튿날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모인 사람들에게 한밤중까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⁸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을 여러 개 밝혀 놓았었다.⁹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 있었는데, 바울의 이야기가 길어지자 그대로 잠들고 말았다. 잠든 청년이 삼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¹⁰ 바울이 아래로 내려가 그 청년을 팔에 안고 말하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살아 있습니다.”¹¹ 그리고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어서 나누어 먹고, 동이 틀 무렵까지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그곳을 떠났다.¹²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가며 큰 위안을 받았다.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¹³ 우리는 바울보다 앞서 배를 타고 앗소를 향해 떠났다.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 배에 태울 생각이었다. 바울 자신은 앗소까지 걸어가고 싶어하였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정한 일이었다.¹⁴ 우리는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¹⁵ 그리고 이튿날 배를 타고 떠나 기오 가까운 곳에 닿았으며, 그 다음 날에는 사모로 건너갔다가, 또 그 다음 날에는 밀레도에 이르렀다.¹⁶ 이렇게 갈 길을 정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시아에 너무 오래 머물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오순절안에 예루살렘에 닿으려고 서두르고 있었다.

바울,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다

¹⁷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그리로 오라고 불렀다.¹⁸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같이 지내는 동안 내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¹⁹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을 생각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며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온 것을 잘 아십니다. 나를 해치려는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섬겨온 것도 잘

*20:4 아시아 소아시아의 서부 지역.

†20:7 일요일에 글자 그대로의 뜻은 ‘주간의 첫날에’. 유대 사람에게 있어서 주간의 첫 날은 토요일 저녁에 시작된다. 그러나 이 책을 쓴 누가가 여기에서 로마 시간을 쓰고 있다면, 이 모임은 일요일 저녁에 열렸을 것이다.

‡20:7 빵을 떼려고 이 말은 단순히 함께 식사를 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주의 만찬’ 예식을 가졌다는 뜻일 수도 있다. 초기의 믿는 이들은 함께 식사를 할 때, 자주 ‘주의 만찬’ 예식을 가졌다.

아십니다. ²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망설임 없이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²¹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였습니다. ²²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묶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²³ 내가 아는 것은, 어느 성읍에 가든지 투옥과 어려움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신다는 것뿐입니다. ²⁴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은 아깝지 않습니다.

²⁵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²⁶ 그러므로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 둡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거기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²⁷ 내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²⁸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보살피라고 맡기신 양 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하나님의 [¶] 교회를 지키는 목자가 되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 [§]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입니다. ²⁹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늑대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 떼를 마구 해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³⁰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이 일어나 그릇된 것을 가르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자기들의 뒤를 따르게 할 것입니다. ³¹ 그러니 내가 삼 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경고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살피십시오!

³² 이제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관한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줄 수 있고, 또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여러분 몫의 유산을 물려받게 해 줄 수 있습니다. ³³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³⁴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내 손으로 일하여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벌어서 썼습니다. ³⁵ 나는 여러분도 나처럼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다.’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³⁶ 이 말을 마치고 바울은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³⁷ 모든 사람이 울며, 바울의 목을 감싸 안고 입 맞추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³⁸ 그들은 바울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말 때문에 더욱 슬퍼하였다. 그들은 바울과 같이 배가 있는 곳까지 가서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바울, 예루살렘으로 가다

21 우리는 그들을 간신히 떼어놓은 다음, 배를 타고 고스까지 곧장 항해하였다. 그 다음 날 우리는 로도로 갔다가 다시 그곳에서 바다라로 갔다. ² 우리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그 배를 타고 떠났다. ³ 키프로스 섬이 보이는 곳에 이르러,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지나쳐 시리아를 향하여 내려가다가 두로에 닿았다. 그 배가 그곳에서 짐을 내리려 했기 때문이었다. ⁴ 우리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이레를 지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다. ⁵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기로 한 날이 지나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을 계속하였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성 밖까지 나와 우리를 배웅하였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⁶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는 뒤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 20:28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주님의’.

[§] 20:28 자신의 피 또는 ‘당신의 아드님의 피로’.

7 우리는 두로에서 배를 타고 떠나 돌레마이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곳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8 우리는 다음 날 길을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우리는 빌립의 집으로 가서 그와 함께 묵었다. 그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이고, 예루살렘에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돕던 일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9 빌립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 딸이 네 명 있었다.

10 우리가 그 집에 여러 날 머물고 있는 동안에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내려왔다. 11 그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발과 손을 묶고 말하였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의 임자를 이렇게 묶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12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했다. 13 그러자 바울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여러분은 이렇게 울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저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14 우리는 그의 마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게 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더 이상 그를 말리려 하지 않았다.

15 이렇게 며칠을 지낸 뒤, 우리는 준비를 갖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16 가이사랴 출신의 제자 몇이 우리와 같이 올라가서, 우리를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묵을 수 있도록 그리로 데려다 주었다. 나손은 키프로스 사람인데 일찍부터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바울, 야고보를 찾아가다

17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자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18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다. 모든 장로들이 그곳에 와 있었다. 19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20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바울 형제도 아시다시피 유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이들이 수천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에 대해 열성적입니다. 21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당신에 관하여 이러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곧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모세의 가르침을 버리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할례도 베풀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22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들도 당신이 이곳에 왔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23 자,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원††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24 그들과 함께 가서 같이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들의 머리를 미는§§ 비용을 대신 치러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에 대한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닐 뿐더러, 도리어 당신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25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결정을 편지로 써 보냈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부도덕한 성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21:8 일곱 사람 사도행전 6장 1-6절을 볼 것.

†† 21:9 예언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

‡‡ 21:23 서원 아마도 나실 사람이 되어 주께 자기를 봉헌하기로 한 맹세인 것 같다. ‘나실 사람’을 찾아 볼 것.

¶¶ 21:24 정결 예식 나실 사람으로서의 맹세를 끝내기 위해서 치르는 여러 가지 특별한 예식. 나실이라는 말은 ‘구별하다’ 또는 ‘...을 신성하게하다’ 라는 말이다. 하나님에게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 특별한 규율을 지키며 살기로 서원한 사람들이다. 민 6:1-21을 보라.

§§ 21:24 머리를 미는 맹세한 기간이 끝났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를 밀었음.

바울이 붙잡히다

26 바울은 이튿날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리고 나서 정결 기간이 끝날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제물을 바칠 날짜를 알리기 위해서 성전뜰로 들어갔다.

27 이레 동안의 정결 기간이 끝날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 뜰에서 바울을 보고는, 모여 있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바울을 붙잡았다. 28 그들은 이렇게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 성전을 거슬러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 사람들을 성전 뜰로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습니다.” 29 (그들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성전 뜰로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30 그래서 온 성이 술렁이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성전 뜰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자 곧바로 성전 문들이 닫혀 버렸다. 31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성 안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 천인대장†에게 온 예루살렘이 폭동에 휘말렸다는 보고가 올라갔다. 32 천인대장은 곧바로 군인들과 백인대장‡들을 거느리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은 천인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던 손을 멈추었다. 33 천인대장은 바울을 체포하고, 부하들에게 쇠사슬 두 개로 바울을 묶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는 바울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였는지 물었다. 34 모여든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말을 하며 소리를 질러댔다. 너무 시끄러워서 천인대장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낼 수가 없었다. 그는 바울을 군부대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35 바울이 총계까지 끌려갈 때, 모여든 사람들이 난폭하게 굴어서 군인들은 그를 둘러메고 가는 수밖에 없었다. 36 모여든 사람들은 뒤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 버려라!” 하고 외쳐댔다.

37 군인들이 바울을 군부대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천인대장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천인대장이 대답하였다. “당신이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시오? 38 그렇다면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오? 나는 당신이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사천 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간 그 이집트 사람인 줄 알았소.”

39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온 유대 사람입니다. 다소는 길리기아에 있는 이름난 도시이고, 나는 그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40 천인대장이 허락하자 바울은 계단에 서서 무리에게 손짓을 하였다. 사람들이 조용해지자, 바울은 아람 말[§]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바울, 사람들에게 말하다

22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네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들에게 아람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훨씬 조용해졌다. 그러자 바울이 말하였다. 3 “나는 유대 사람으로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 21:27 아시아 소아시아의 서부 지역을 말함.

† 21:31 천인대장 1,0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장교를 뜻하지만, 실제로 이 시기에는 600명 정도로 구성된 부대의 지휘관이었다.

‡ 21:32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

¶ 21:38 자객 사람을 몰래 죽이는 사람.

§ 21:40 아람 말 1세기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와 비슷한 언어.

** 22:3 가말리엘 유대교의 한 종파인 바리새파의 매우 유명한 선생(행 5:34).

조상들의 율법에 따라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⁴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으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붙잡아 감옥에 처넣었습니다. ⁵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 ^{††}들이 증언해 줄 것입니다. 나는 이 지도자들이 다마스쿠스에 사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자기의 개종에 대해 이야기하다

⁶그러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오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비치며 나를 둘러쌌습니다. ⁷내가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데 내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⁸‘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내가 여쭙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다.’ 하고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⁹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는 알아듣지 ^{‡‡} 못하였습니다.

¹⁰내가 여쭙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가라. 그곳에 가면 네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 듣게 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¹¹나는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들이 내 손을 잡아 다마스쿠스로 데려갔습니다.

¹²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 ^{¶¶}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서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¹³아나니아가 나를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사울 형제, 이제 다시 보십시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나는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¹⁴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 주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¹⁵당신은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¹⁶그러니 이제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어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죄를 씻으십시오.’

¹⁷얼마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루는 성전에서 기도를 하다가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다. ¹⁸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둘러라. 지금 당장 예루살렘을 떠나거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에 대한 네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¹⁹내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은 제가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매질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²⁰그리고 주님의 증인인 스테반이 죽임을 당했을 때, 저는 그 일에 찬성하며 그곳에 서서 스테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²¹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²²유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들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다. “이 자를 없애 버려라. 이런 자는 죽어 마땅하다!”

^{††} 22:5 장로 백성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 주던 나이 지긋한 사람들.

^{‡‡} 22:9 알아듣지 또는 ‘듣지’.

^{¶¶} 22:12 아나니아 사도행전에는 세 사람의 아나니아가 나온다. 다른 두 사람의 아나니아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5장 1절과 23장 2절을 볼 것.

23 그들은 옷을 벗어 던지고 공중으로 흙을 뿌리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24 천인대장^{§ §} 은 부하들에게 바울을 군부대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소리 지르는 까닭을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해 심문하라고 하였다. 25 군인들이 그를 심문하려고 뭉자, 바울은 그곳에 서 있던 백인대장*에게 “당신이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는 일ियो?”[†] 하고 말하였다.

26 백인대장은 그 말을 듣고 천인대장에게 가서 말하였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27 천인대장은 바울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이 로마 시민ियो?”

“그렇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28 “나는 많은 돈을 써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소.” 천인대장이 말하였다.

“나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29 그러자 바울을 심문하려던 사람들이 곧장 뒤로 물러났다. 천인대장 자신도, 자기가 로마 시민인 바울을 쇠사슬로 묶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겁을 먹었다.

바울, 유대 사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다

30 다음 날 천인대장은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했는지 그 까닭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그는 높은 제사장들과 유대 의회 의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바울을 묶은 쇠사슬을 풀어 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 바울을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웠다.

23 바울은 유대 의회[‡] 의원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양심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²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³ 그러자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오! 당신은 흰색 회를 덧바른 더러운 벽과 같은 사람이오! 당신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그 자리에 앉았으면서, 오히려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한단 말이오?”

4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한단 말이오?”

5 바울이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네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을 욕하지 마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6 바울은 그들이 한 편은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다른 한 편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것을 알고는, 의회 안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렇게 재판받고 있습니다.”

7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의회가 두 패로 갈렸다.⁸ (사두개파는 죽은 사람이, 천사로나 영으로나 다시 살아나는 일은 결코 없다고 주장하는데, 바리새파는 두 가지를 다 믿기 때문이었다.)⁹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 선생들 가운데 몇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 큰 소리로 이렇게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영이나 천사가 정말로 이 사람에게 말을 하였다면 어찌시렵니까?”

§ § 22:24 천인대장 1,0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장교를 뜻하지만, 실제로 이 시기에는 600명 정도로 구성된 부대의 지휘관이었다.

*22:25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

† 22:25 로마 시민을…일ियो 로마법에는 로마 시민을 재판하기 전에는 때릴 수 없게 되어 있다.

‡ 23:1 의회 그리스어로는 ‘산헤드린’.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71명으로 이루어진 국가 최고의 입법과 사법 기구.

¶ 23:5 네 백성을…마라 출 22:28.

10 다툼이 너무 격해지자 천인대장[§]은 바울이 두 무리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길까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그들에게서 빼내어 군부대로 데리고 내려가게 하였다.

11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방금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

12 이튿날 아침 유대 사람들이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자기들끼리 맹세하였다. 13 이 음모에 가담한 사람은 사십 명이 넘었다. 14 그들은 높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일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맹세하였습니다. 15 그러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의회는 천인대장에게,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니 바울을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으로 오는 길에 그를 없애 버릴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16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이들이 꾸민 일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군부대를 찾아가서 바울에게 그 일을 알렸다. 17 바울은 백인대장†† 한 사람을 불러 부탁하였다. “이 젊은이가 천인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니 좀 데려다 주시오.” 18 그래서 백인대장은 그 젊은이를 데리고 천인대장에게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저를 불러서 이 젊은이를 대장님께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19 천인대장은 그 젊은이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물었다.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20 그 청년이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내일 바울을 의회‡‡로 데려다 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바울을 더 자세히 심문하려는 척할 것입니다. 21 그러나 그들의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십 명도 넘는 자들이 바울에게 덤벼들어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준비를 갖추고 대장님께서 자기들의 청을 들어주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22 천인대장은 그 말을 듣고 젊은이를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내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바울, 가이사랴로 보내지다

23 그리고 나서 그는 백인대장 두 사람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가이사랴로 갈 수 있도록 보병이백명과 기병 칠십명 그리고 창병이백명을 오늘 밤 아홉 시까지 준비시켜라. 24 그리고 바울이 타고 갈 말들도 준비해 주고, 그를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데려다 주어라.” 25 그리고 나서 천인대장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26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존경하옵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27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구해 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8 저는 유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발한 까닭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유대 의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29 저는 그가 유대 사람들의 율법 문제로 고발을 당했으며, 사형시키거나 감옥에 가둘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23:10 천인대장 1,0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장교를 뜻하지만, 실제로 이 시기에는 600명 정도로 구성된 부대의 지휘관이었다.

**23:16 조카 글자 그대로는 ‘누이의 아들’.

†† 23:17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

‡‡ 23:20 의회 그리스어로는 ‘산헤드린’.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71명으로 이루어진 국가 최고의 입법과 사법 기구.

30 저는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장 각하게 바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한 자들에게는 각하 앞에 가서 그를 고소하라고 말해 두었습니다.”

31 병사들은 명령 받은 대로 바울을 데리고 밤에 안디바드리로 갔다. 32 이튿날 기병들만 남고 다른 보병들과 창병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군부대로 돌아갔다. 남은 기병들은 바울을 호송하여 가이사랴로 갔다. 33 기병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총독에게 편지를 전하고 바울을 그에게 넘겼다. 34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이냐고 물었다. 바울이 길리기가 출신이라고 말하자, 35 그는 “당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당신의 말을 들어 보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는 바울을 왕궁 안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이 왕궁은 전에 헤롯왕 ¶ 이 지은 건물이었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다

24 다섯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이사랴로 내려왔다. 아나니아는 장로 몇 사람과 더들로라는 법률가도 데리고 왔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려는 것이었다. 2 이들이 모인 자리로 바울이 불러 나오자, 더들로가 고발하기 시작하였다.

“존경하는 벨릭스 각하, 우리는 각하 덕분에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 왔습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시는 각하의 슬기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3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며 각하게 지극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4 긴 말로 각하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 잠깐만 제 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는 이 사람이 말썽꾼으로서, 온 세상에 퍼져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사렛 종파 § § 의 우두머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6 또 그가 성전까지 더럽히려 하고 하기에, 우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8 각하께서 그를 직접 심문해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것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9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바울,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다

10 총독이 몸짓으로 바울에게 말하라고 하자 바울이 말을 시작하였다.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변호하겠습니다. 11 각하께서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겨우 열이를 전이였습니다. 12 그리고 저를 고발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어느 누구와도 말다툼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회당이나 그들의 도시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13 또 그들은 제가 한 일을 들어 각하게 고발하지만, 각하게 그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14 그러나 제가 이것은 인정합니다. 곧 제가, 그들이 이단 † 이라고 하는 예수의 도를 따라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율법과 예언서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15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는데, 저를 고발한 이 사람들도 저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란, 앞으로 의로운 사람들이나 악한 사람들이나 모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저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 ¶ 23:35 헤롯왕 헤롯대왕. 기원전 40년부터 4년까지 유대를 다스렸다.

§ § 24:5 나사렛 종파 나사렛 사람 예수를 따르고 믿는 이들의 종파란 뜻으로 쓰였다.

* 24:6 6-8절 어떤 그리스어 사본들에는 다음과 같은 6절 뒷부분에서 8절 앞부분까지가 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7 그러나 사령관 루시아가 와서 억지로 그를 빼앗아 갔습니다. 8 그리고 루시아는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각하게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 24:14 이단 여기서는 정통 유대교에서 벗어나는 종파를 말한다.

17 저는 여러 해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민족에게 구호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여러 해 만에 돌아왔습니다. 18 저를 고발하는 자들이 성전 뜰에서 저를 보았을 때, 저는 정결 예식[‡]을 마치느라 절차에 따라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곁에 많은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제가 어떤 소동에 휘말려 있지도 않았습니다. 19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저를 고발할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각하 앞에 나와서 고발해야 마땅합니다. 20 또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제가 의회[§] 앞에 섰을 때에 제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21 저는 그들 앞에 섰을 때 ‘나는 오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소리친 일밖에 없습니다.”

22 벨릭스는 예수의 ‘도’에 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루시아 천인대장^{**}이 오면 당신들이 낸 소송에 대해 결정을 내리겠소.” 하고 말하며 재판을 연기하였다. 23 그는 백인대장^{††}에게 바울을 지키게 하되,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돕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바울,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하다

24 며칠 뒤에 벨릭스는 유대 여자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리고 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25 그런데 바울이 바른 생활과 절제와 다가를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자 벨릭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는 “지금은 이만 돌아가시오.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당신을 다시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26 벨릭스가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데에는 또 다른 까닭이 있었다. 그는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자주 그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27 두 해가 지나 벨릭스의 뒤를 이어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다.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바울을 감옥에 그대로 가두어 두었다.

바울, 시저에게 상소하다

25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가이사라에 왔다. 그는 도착한 지 사흘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2 높은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3 그리고 자기들의 청을 들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리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4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을 가이사라에 붙잡아 둘 것이며, 자기가 곧 가이사라로 돌아갈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5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지도자 몇 사람도 나와 함께 갑시다.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들이 가이사라에 와서 그를 고발하도록 하시오.”

6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겨우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머물다가 가이사라로 내려갔다. 그리고 다음 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7 바울이 나오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는 여러 가지 큰 죄목으로 고발하였지만 그 증거를 대지는 못하였다. 8 바울은 “저는 유대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시저에 대해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자기를 변호하였다.

‡ 24:18 정결 예식 나실 사람으로서의 맹세를 끝내기 위해서 치르는 여러 가지 특별한 예식. (행 21:24)

¶ 24:19 아시아 소아시아의 서부 지역을 말함.

§ 24:20 의회 그리스어로는 ‘산헤드린’.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71명으로 이루어진 국가 최고의 입법과 사법 기구.

** 24:22 천인대장 1,0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장교를 뜻하지만, 실제로 이 시기에는 600명 정도로 구성된 부대의 지휘관이었다.

†† 24:23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

9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게 재판을 받고 싶은 생각은 없소?”

10 바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지금 시저의 법정에서 있으며, 제가 재판을 받을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총독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저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11 만일 제가 죄를 지었고 사형을 당할 만한 짓을 했다면, 죽음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저를 두고 고발하는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저를 이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저는 시저에게 상소^{††} 합니다.”

12 베스도는 자기를 돕는 자문 위원들과 의논한 다음 “당신이 시저에게 상소하였으니, 시저에게 갈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 아그립바왕과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13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립바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환영 인사를 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14 그들이 그곳에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 베스도는 다음과 같이 아그립바왕에게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벨릭스가 옥에 가두어 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15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높은 제사장들과 유대의 장로*들이 그 사람에 대해 고발하며 유죄 판결을 내려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16 나는 그들에게, 고발 당한 사람이 고발한 사람을 직접 만나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지 않는 것이 로마의 관습이라고 말하였습니다. 17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이곳으로 왔습니다. 나는 시간을 끌지 않고 그 다음 날 재판석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18 그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하였지만, 내가 기대했던 죄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9 다만 자기네 종교와 예수라는 어떤 죽은 사람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달리할 뿐이었는데, 바울은 그 사람이 살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 나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그 사람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21 그러나 바울은 이 사건을 시저에게 상소하며, 시저의 판결이 내릴 때까지 그대로 갇혀 있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시저에게 보낼 수 있을 때까지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22 그러자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 보고 싶습니다.”

“내일 그 사람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베스도가 대답하였다.

바울, 아그립바왕 앞에 서다

23 다음 날 아그립바와 버니게[†]는 잔뜩 위엄을 갖추어 차려 입고는,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과 함께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베스도의 명령에 바울이 불러 들어왔다. 24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립바왕 전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이 사람을 좀 보아 주십시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이나 이곳에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더 이상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며 나에게 고발한 사람입니다. 25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이 죽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저에게 상소하자, 그를 시저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6 그러나 시저에게 올릴 편지에, 이 사람에 대해 확실하게 써 보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립바왕 전하 앞에 데려다

†† 25:11 상소 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보다 높은 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

¶¶ 25:13 아그립바왕 헤롯 아그립바 2세. 헤롯 아그립바 1세의 아들이며 헤롯대왕의 증손자였다.

§§ 25:13 버니게 아그립바의 누이동생으로서, 헤롯 아그립바 1세의 큰 딸이었다.

* 25:15 장로 백성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 주던 나이 지긋한 사람들.

† 25:23 버니게 아그립바의 누이동생으로서, 헤롯 아그립바 1세의 큰 딸이었다.

세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를 조사하면 무언가 편지에 써 보낼 만한 것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²⁷ 죄수를 보내면서, 그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 사항을 상세히 적어 보내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6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말하였다. “네 자신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해도 좋다.”
그러자 바울은 앞으로 손을 내밀고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였다.² “아그립바왕 전하, 유대 사람들이 저를 고발한 일에 대해 오늘 전하 앞에서 제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³ 전하께서는 유대 사람의 관습과 그들이 문제 삼는 점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제 말을 끝까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⁴ 모든 유대 사람은 제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곧 제가 제 동족 가운데서 지내던 일과 예루살렘에서 지내던 일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⁵ 그들은 오래 전부터 저를 알아 왔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제가 우리 종교 가운데서 가장 엄격한 종파인 바리새파의 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증언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⁶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재판 자리에서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약속에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⁷ 이 희망은, 우리 이스라엘 열두 가문이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바로 그 희망입니다. 전하, 제가 지금 유대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희망 때문입니다.⁸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⁹저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맞서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¹⁰ 제가 예루살렘에서 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높은 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서 많은 믿는 이들을 감옥에 처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일 때, 저는 그 일에 찬성하였습니다.¹¹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그들을 벌주고 억지로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너무도 화가 나서, 다른 나라에 있는 도시들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¹² 이런 일을 하고 다니던 가운데, 한번은 높은 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임무를 받아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¹³ 오, 전하, 제가 한낮에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또 저와 같이 가던 사람들을 둘러싸는 것이었습니다.¹⁴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람 말[‡]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뽀족한 물이막대기를 발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¹⁵ 그래서 제가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¹⁶ 자, 이제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낸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앞으로 네게 보여 줄 일에 대한 증인으로 삼으려는 것이다.¹⁷ 나는 너를 네 동족과 이방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주어,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겠다.¹⁸ 너는 그들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돌아서게 하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죄를 용서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할 것이다.’

¹⁹아그립바왕[¶] 전하, 저는 그 하늘의 환상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²⁰ 저는 먼저 다마스쿠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로 회개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하였습니다.²¹ 바로 그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제가 성전 뜰에 있을 때에 저를 붙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²² 저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언자들과 모세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말한 것 밖에는 다른 어떤

[‡] 26:14 아람 말 1세기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와 비슷한 언어.

[¶] 26:19 아그립바왕 헤롯 아그립바 2세. 헤롯 아그립바 1세이며, 헤롯대왕의 증손자.

이야기도 전하지 않습니다.²³ 그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그 일이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겪으셔야 한다는 것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아난 분이 되어, 우리 백성과 다른 나라 백성 모두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²⁴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자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하였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²⁵ 바울이 대답하였다. “존경하는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드리는 참말입니다.²⁶ 여기 계신 아그립바왕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거리낌 없이 전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하께서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일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²⁷ 아그립바왕 전하, 전하께서는 예언자들이 기록하여 놓은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전하께서 믿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²⁸ 그러자 아그립바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너는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²⁹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은 시간에든 긴 시간에든, 저는 전하뿐만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저처럼 쇠사슬에 묶이는 일을 빼고는 저와 똑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³⁰ 그러자 왕이 일어섰고, 총독과 버니게[§]와, 그들과 함께 앉아 있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³¹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소.”³²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이 시저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수도 있었을 것이오.”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떠나다

27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율리오라는 백인대장**에게 넘겨졌다. 율리오는 황제 부대에 속한 사람이었다.² 우리는 아드라뎃데노에서 온 배에 올랐는데, 그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항구를 들리기로 되어 있는 배였다. 우리는 그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³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내렸는데,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그가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 받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⁴ 시돈을 떠나 항해할 때, 우리는 마주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섬의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였다.⁵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나아가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하였다.⁶ 그곳에서 백인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찾아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⁷ 우리는 며칠 동안 천천히 항해하다가 간신히 니도라는 곳에 닿았다. 그러나 맞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크레테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섬의 남쪽 해안을 끼고, 살모네 곶 앞바다를 지나 항해하였다.⁸ 우리는 크레테 섬의 해안선을 따라 힘들게 항해하여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이 항구는 라새아 성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⁹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으므로, 이제는 항해하기가 위태로웠다. 금식하는 날‡‡조차 벌써 지나가 버린 때였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¹⁰ “여러분, 내가 보기에 우리가 지금 항해하면, 배와 배에 실은 짐뿐 아니라 우리의

§ 26:30 버니게 아그립바의 누이동생으로서, 헤롯 아그립바 1세의 큰 딸.

**27:1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

††27:2 아시아 소아시아 서쪽 지방을 말함.

‡‡27:9 금식하는 날 이날은 속죄의 날로, 유대 사람들이 가을에 지키는 거룩한 날이다. 이때는 바다에 폭풍이 심하게 부는 계절이다.

목숨까지도 다치거나 잃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¹¹ 그러나 백인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¹²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당하지 못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바다로 나가서, 할 수만 있다면 피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자고 하였다. 피닉스는 크레테 섬에 있는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모두 바라보는 곳이다.

폭풍을 만나다

¹³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네 뜻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닻을 올리고, 해안에 바싹 붙어서 크레테 섬을 지나 항해하기 시작하였다.¹⁴ 그런데 얼마 안 되어 ‘북동풍’이라 불리는 강한 바람이 크레테 섬에서 몰아쳐 내렸다.¹⁵ 배가 바람에 휘말려,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람에 배를 맡기고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갔다.¹⁶ 이렇게 가우다라는 작은 섬의 해안을 따라 흘러갈 때에, 그 섬이 바람막이가 되어 주어, 우리는 배 뒤에 매여 끌려오던 거룻배[¶]에 간신히 손을 쓸 수가 있었다.¹⁷ 그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로 끌어올린 다음, 밧줄을 배 밑으로 돌려 선체를 단단히 동여매었다. 그런 다음 배가 시르티스[§]의 모래톱에 얽혀 꼼짝 못 하게 될까 두려워, 닻을 내리고 배가 흘러가는 대로 두었다.¹⁸ 이튿날 심한 폭풍에 시달리다 못해 그들은 짐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하였다.¹⁹ 그리고 셋째 날에 그들은 자기들 손으로 배의 도구도 바다에 던져 버렸다.²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폭풍에 심하게 시달리자, 마침내 우리는 살아날 희망을 잃었다.

²¹ 사람들은 모두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은 크레테 섬에서 떠나지 말자고 한 내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이런 손해와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²² 이제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배만 잃게 될 것입니다.²³ 어젯밤 천사가 내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습니다.²⁴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시저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 때문에 너와 함께 이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목숨을 살려 주실 것이다.’²⁵ 그러니 여러분은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²⁶ 그러나 우리 배는 어떤 섬에 걸려 꼼짝 못 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²⁷ 열나흘째 밤에 우리는 아드리아 해^{*}를 가로질러 흘러가고 있었다. 한밤중쯤에 선원들은 우리가 탄 배가 물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²⁸ 그들이 물 속으로 추를 내려 보니 스무 길[†]이었다. 조금 뒤에 그들이 다시 추를 내려 보니 열다섯 길[‡]이었다.²⁹ 그들은 암초에 걸리거나 않을까 두려워서 배 뒤쪽의 닻을 네 개 내리고 어서 날이 새기를 빌었다.³⁰ 선원들은 도망치려고 배 앞쪽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렸다.³¹ 바울은 백인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입니다.”³² 그러자 병사들이 밧줄을 잘라서 거룻배를 멀리 떠가게 하였다.

³³ 막 날이 새려고 할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나흘째 음식도 못 먹고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렸습니다.³⁴ 이제 음식을 좀 드십시오. 살아남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 **27:16** 거룻배 뜻을 달지 않은 작은 배. 여기서는 구명용 보트를 말한다.

§ **27:17** 시르티스 리비아 가까이 있는 얇은 바다.

* **27:27** 아드리아 해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바다와 지중해 중간 부분을 포함한 바다.

† **27:28** 스무 길 약 37미터.

‡ **27:28** 열다섯 길 약 27미터.

¶ **27:31**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

머리카락 한 올 잃지 않을 것입니다.”³⁵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빵을 들어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빵을 떼어 먹기 시작하였다.³⁶ 그러자 사람들도 모두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다.³⁷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이백칠십육 명이었다.³⁸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난 뒤에, 남은 곡식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만들었다.

배가 부서지다

³⁹ 날이 밝자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배를 거기에 대기로 하였다.⁴⁰ 그래서 그들은 닻줄을 끊어 닻이 바다에 가라앉게 하고는, 키를 묶어 놓은 닻줄을 풀었다. 그리고 배 앞머리의 돛을 올려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나아갔다.⁴¹ 그러나 배가 모래톱에 걸려 꼼짝 못 하게 되어 버렸다. 배의 앞쪽은 모래톱에 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고, 배 뒤쪽은 세찬 파도에 깨져 버렸다.

⁴² 병사들은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모두 죽일 계획을 세웠다.⁴³ 그러나 백인대장⁵은 바울을 살릴 생각으로 병사들의 뜻을 꺾고,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배 밖으로 뛰어 내려 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⁴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빤지나 배에서 부서진 조각들을 붙들고 물로 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하여 모든 사람이 무사히 물에 올랐다.

바울, 몰타 섬에 오르다

28 우리가 물에 안전하게 오른 다음에야 그 섬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² 그 섬 사람들은 우리를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비가 내렸고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그들은 불을 피워 놓고 우리를 맞아 주었다.³ 그때에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무더기 모아서 불 위에 올려놓으려 하자,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매달렸다.⁴ 섬사람들은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린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살인자가 틀림없다. 그가 바다에서는 살아 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 두지 않는구나!” 라며 서로 말하였다.⁵ 그러나 바울은 뱀을 털어 불 속에 던져 버렸고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다.⁶ 그들은 바울이 부어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 바울을 신이라고 말하였다.

⁷ 그곳 가까이에서, 그 섬의 우두머리 어른인 보블리오의 땅이 있었다. 그는 매우 친절하여, 우리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사흘 동안 손님으로 잘 대접해 주었다.⁸ 보블리오의 아버지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자리에 누워 있었다. 바울은 그를 찾아가 기도하고 손을 얹어 병을 고쳐 주었다.⁹ 그런 일이 있자, 그 섬의 다른 병자들도 찾아와서 병 고침을 받았다.¹⁰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며 존경을 표시하였고, 우리 배가 떠날 때에는 우리가 쓸 물건들을 배에 실어 주었다.

바울, 로마로 가다

¹¹ 우리는 석 달을 지낸 다음에,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났다. 그 배의 이름은 ‘쌍둥이 신’^{**}이었다. 그 배의 뱃머리에는 쌍둥이 신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¹² 우리는 수라구사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렀다.¹³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레기온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남풍이 불어와, 우리는 그 다음 날 보디올에 닿았다.¹⁴ 우리는 그곳에서 몇몇 형제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의 간청으로 이레 동안 함께 지냈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 로마에 가게 되었다.¹⁵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⁵ 27:43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

^{**} 28:11 쌍둥이 신 그리스어로는 ‘쌍둥이 신’이라는 뜻의 ‘디오스구로’.

소식을 듣고 아피온 광장^{††}과 ‘세 주막 마을’^{‡‡}까지 마중을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바울, 로마에서 선교 활동하다

¹⁶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¹⁷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에 있는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을 불러모았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민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예루살렘에서 죄인으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¹⁸ 로마 사람들은 나를 조사하고 나서 놓아 주려 하였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¹⁹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시저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²⁰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는 까닭은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입니다.”

²¹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아무런 편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온 형제들 가운데 아무도 당신에 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거나 전하는 것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²²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에서나 반대의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²³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해 두었다가, 그날이 되자 많은 사람이 바울이 묵고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증언하였으며,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 가면서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썼다. ²⁴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믿었으나, 어떤 이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²⁵ 그들이 서로 뜻이 맞지 않아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자, 바울이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다. “성령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²⁶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²⁷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아예 감아 버렸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고쳐 줄 터인데!’^{§§}

†† 28:15 아피온 광장 로마에서 64.5킬로미터 떨어진 광장.

‡‡ 28:15 세 주막 마을 그리스어로는 ‘트레스 마을’. 로마에서 45.9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

¶¶ 28:20 이스라엘 유대 민족.

§§ 28:27 사 6:9-10.

28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귀를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29 *

30 바울은 자기의 셋방에서 꼬박 두 해를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두 맞아들였다. 31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다. 아무도 그가 하는 일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 28:29 29절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29절이 있다. “바울이 말을 마치자, 유대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열띤 토론을 벌이면서 떠나갔다.”